

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음식·숙박업 '바가지요금' 단속

'1숙소 1담당관제' 운영... 선수단 예약 현황·요금제 게시 여부 등 확인 숙박업소 100곳 사전요금 누리집서 확인... 착한가격 업소 이용 권고

목포시가 오는 10-11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리 강화한다.
목포시는 지역 숙박업소 306개 가운데 198곳(5749실)을 선별해 '1숙소 1담당관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숙소 담당관은 목포시 산하 모든 부서 팀장급으로, 지난 21일부터 담당 숙박업소를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지정된 숙박업소를 매주 방문해 선수단 예약현황과 영업신고증·요금제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숙박업소 영업주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숙소 담당관이 발견한 문제점은 목포시 보건소 단속반의 추가 점검과 계도,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

이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선수단·관계자의 숙박 예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소들에 사전 요금제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사전 요금 협약을 맺은 숙박업소에 침구류 교체비를 지원한다.

이달 현재 목포시에 사전요금제를 신청한 업소는 100곳이다. 목포시 누리집 '숙박업소 사전요금제'에서 숙박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는 오는 26일 200여 명의 숙박업소 영업주·종사자와 '전국체전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열어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다짐한다.

선수단 숙박업소 인근 음식점 507곳을 포함한 지역 식당들을 대상으로는 바가지요금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북항회센터 일원에서 목포소상공인연합회, 북항상인회, 북항활어회플라자 상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회 등 50여 명과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북항회센터와 수협, 활어회플라자, 씨푸드타운 등 상가를 찾아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권했다.

목포시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착한가격업소 모집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휴가철과 전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부장 moon@



목포시와 목포소상공인연합회 등 50여명이 지난 21일 북항회센터를 찾아 먹거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종합경기장 건설, 폭우에 다음달 완공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장소 육상 사전 경기 차질없이 추진

악천후로 목포종합경기장 완공 시기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목포종합경기장 공정률은 98%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완공 시기를 8월로 미루기로 했다.

목포시는 육상 사전경기(프레데이)를 치르는 다음 달 19일 이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프레데이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 미리 경기를 치러보는 사전 대회다.

목포종합경기장은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열고 각종 육상 경기를 치르기 위해 건립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지붕 공사과 트랙공사, 토목·조경공사 등 공사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경기장을 완공한 뒤 점검을 거쳐 육상종목 프레데이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13일-19일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



10월 전국체전, 11월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과 주요 종목 경기가 열린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이 악천후로 완공 시기를 다음 달로 미루게 됐다. 지난 19일 촬영한 경기장 건설 현장. <목포시 제공>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3일-8일 12개 시·

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 경기가 열린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 서호면 굽은 도로 편다

군도3호선 청룡제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

영암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굽은도로를 직선으로 펴 계획이다.

영암군은 최근 서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호 군도3호선 청룡제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는 급경사·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형에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영암군 개량공사 노선은 서호면을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급경사·급커브 등이 많아 차량 이탈·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다.

영암군은 기존 도로 선형과 지형을 고려해 연장 600m 구간을 급경사·급커브를 최대한 완화하는 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군비 2억원·총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영암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드레일 및 미끄럼 방지시



영암 서호 군도3호선 선형개량공사 계획도.

설 설치와 겨울철 결빙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의견도 제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급커브 구간 도로 선형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비 100억 확보

클러스터 배후단지·특화공원 조성 등 추진...세금 감면 혜택도

영광군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인 e-모빌리티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영광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발전촉진형)는 수도권에 인구·기업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및 세제·부담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발전촉진형)는 전국 1곳으로 순수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광군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확장사업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e-모빌리티 Complex, 특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e-모빌리티 Complex는 인력양성센터, 미래 산업협력지원단, 해외수출지원단 등을 포함해 기

업성장과 e-모빌리티 해외수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특화공원에 한국자동차공학회 주관 전국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전용트랙을 조성해 모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기업유치 및 기업성장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광군 미래 먹거리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 관매도 해변 정화

국립공원 공단·지자체·주민 등 도서지역 3곳 쓰레기 16t 수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여름성수기를 맞아 진도 관매도 장암 해변 등에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올해 장마철 폭우로 급증한 해양쓰레기 초기에 수거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청정한 국립공원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공단, 지자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탐방객들이 주로 찾는 해변지역과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자주 반출되지 못하는 도서지역 3개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해양쓰레기 10t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쓰레기 중에는 어업쓰레기와 함께 장마로 인해 육지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가 6t가량을 차지했다.

문광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국



립공원의 건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름성수기와 태풍철에도 탐방객과 지역주민

의 불편이 없도록 청정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임자도 영양만점 민어로 보양 하세요

신안군, 다음달 5~6일 '섬 민어축제' 요리 만들기 등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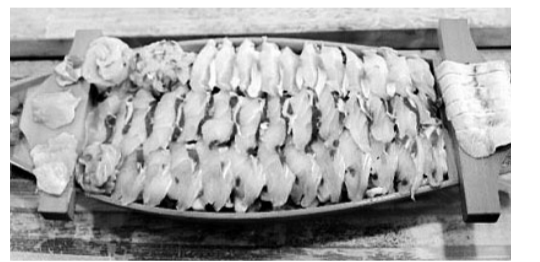
제철 수산물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오는 8월 5-6일 전국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을 보유한 '홍매화의 섬'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섬 민어축제'를 개최한다.

신안 민어는 주로 7-9월 임자도 해역에서 잡힌다. 신안군내 민어 조업 어선은 모두 140여 척으로,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에서 대부분 위판 및 판매되는 가운데 지난해 742t의 어획량과 96억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신안 민어는 동의보감에 '맛이 좋고 독이 없으며, 부레는 어표라고도 하는데 파상풍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특히 병약자, 노인, 어린이들의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비만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중풍,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더위를 물리치는 여름철 최고의 보양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고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귀한 음식으로 전해진다.



신안 민어회

이번 '섬 민어축제'에선 식전행사인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민어 요리 만들기 및 시식회, 민어 해체쇼, 민어 탕스경연 대회 및 가요제, 수산물 깜짝 경매 등이 펼쳐진다.

또 부대행사로 농·수특산물 판매관 운영, '민어가 들려주는 바다이야기' 영상 상영, 생산자·소비자·판매자 자정선언문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千의 약속'

기부자 1000명 10년간 매년 10만원씩 기부 캠페인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千(천인)의 약속' 캠페인을 추진한다.

'千의 약속'은 1000명의 기부자가 10년간 매년 10만원씩을 기부하는 기부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살리고 꾸준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액의 1회성 기부보다 소액의 다수 기부자를 확보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기부자가 부담없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千의 약속' 캠페인

에 참여할 기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말 개최할 예정인 고향사랑의 밤 행사에 회원들을 초대하는 감사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직접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고향친화적 기부 답례품 및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해남사랑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